

當代 중국 마르크스주의 철학 연구의 회고와 전망

聶錦芳*

(번역: 임태승)**

새로운 세기의 형세는 역사와 현상을 되돌아보고 미래의 발전방향을 전망토록 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훨씬 더 이성적으로 미래를 맞이하기 위해 이러한 반성적 회고는 전면적이면서도 훨씬 심도 깊은 것이어야 한다. 이는 마치當代의 중국 哲學界가 스스로의 민족적 특색을 지닌 철학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 있어, 중국전통철학과 서양철학 및 마르크스철학의 연구가 여전히 삼각구도를 이루고 있는 상황 아래 이 삼자의 융합과 創新을 실현하여 역사와 현 상황에 대해 객관적 정리와 功過의 구별 및 신중한 분석과 평가가 기본적으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일인 것과 마찬가지이다. 마르크스주의 철학 연구로 말할 것 같으면 그 정황이 더욱 더 이와 같다. 이하의 논의는 이 문제에 대해 학계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는 필자의 소망을 담긴, 그저 아직은 미숙한 분석일 뿐이다.

*北京大学 哲學系 교수

**북경대 졸업, 현 성균관대 강사

20세기 중국의 마르크스주의 철학의 연구는 단순히 한 학문으로서 독립하여 발전한 과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한편 전반적인 중국사회의 변혁과 정치변화와 밀접한 연계를 갖는 것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이 연구는 필연적으로 1949년과 1978년을 분기로 하여 세 단계로 나뉜다.

(1) 1949년 이전은 마르크스주의 철학이 중국에 수입되고 전파되는 데로부터 비판과 논쟁을 거쳐 마침내 국가가 주도하는 형태의 철학이 된 시기이다.

마르크스주의 철학은 시작부터 단순한 이론이나 학설로서 중국에 들어온 것이 아니다. 사회모순이 쌓이고 내우외환에 시달리며 안정과는 거리가 멀었던 정황 아래, 그것은 중국의 고질병을 치료하고 중국이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을 찾으며 또한 이상사회의 모델과 사회운영구조에 있어 그 사상적 기초가 되리라는 등의 역할을 맡았던 것이다. 20세기 초의 이러한 상황 아래 마르크스주의 철학은 그러나 아직은 여러 사회사상 가운데 하나였으며, 復古派나 西化派 내지는 기타 외국학설과 논쟁을 거듭하였다. “五四” 시기에는 問題와 主義, 무정부주의와 사회주의 문제에 관한 대논쟁이 있었다. 1920년대에 또한 과학과 인생관의 논전 및 國家主義派와 戴季陶主義에 대한 비판이 전개되었다. 1930년대에는 중국사회의 성격과 “철학은 어디를 향해 가는가”의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공산당 내부의 중국혁명의 특수노선 등에 관한 문제가 토론의 초점이었다. 1940년대에 이르러 또한 唯生論, 力行哲學, 戰國策派 철학, 新理學, 新心學 등이 서로 논쟁을 벌였다. 바로 이러한 논쟁의 과정 중 마르크스주의 철학은 중국역사에 대한 전혀 새로운 해석으로서, 복잡한 사회현상을 정확히 투시하고 당시 실제 문제의 특수성을 해

결함으로써 역량을 보여주었고 그 영향력을 확대하였으며 중국공산당원이 혁명투쟁을 전개해 나가는데 효과적인 이론 무기가 되었던 것이다. 창조적 의식을 지녔던 毛澤東 등 영웅들은 의식적으로 중국의 현실을 고려하여 마르크스주의 철학을 中國化 하였다. 중국공산당이 전국에서 정권을 장악함에 따라 마르크스주의 철학은 마침내 “국가철학”이라는 주류 이데올로기로 격상되었다.

(2) 1949년부터 1977년 사이, 마르크스주의 철학 연구는 주로 해석과 선전 및 보급에 집중되었다. 레닌의 말대로 전국에서 “개선가를 부르며 씩씩하게 행진하던 시기”였다. 물론 그 시기에는 나중에 “左”的 곡해가 출현하여, 방향을 못 잡고 폐단과 파오의 높으로 빠져들기도 했다.

이 시기에는 철학 영역을 포함한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학습과 선전이 국가사업이 되었으니, 위로는 영도자부터 아래로는 일반 국민들까지 “모든 이가 철학을 배웠다.” 소련 판본의 철학교과서의 보편적 채용은, 마르크스주의 철학의 보급에 큰 탄력을 주었고 기본적으로 당시 마르크스주의 철학에 대한 이해를 좌우하였다. 이 시기는 대량의 마르크스주의 철학의 선전자와 연구자를 배양하고 체계적으로 중요인물들의 문헌을 번역하기 시작하였다. 몇몇 연구과제는 이미 윤곽을 드러내었는데, 주관동성과 객관규율성, “사유와 존재의 동일성”, “一分爲二”와 “合二而一”, 중국철학의 비판적 계승, 美의 본질 등 문제에 대해 쟁론이 전개되었다. 이와 동시에 과거 다양한 非마르크스주의 철학자들이 마르크스주의 철학을 받아들이고 연구하기 시작했으며, 다른 형식의 철학은 모두 정도는 다르지만 비판을 받게 되었다. 유물사관이 하나의 방법론이 되어 모든 인문, 사회과학 영역을 관통하게 되었다. 국가정치의 곡절에 따라 마르크스주의 철학 연구 중 教條主義나 原理主義, 혹은 저속화 등의 문제 또한 출현하였으며, 이는 “문화대혁명” 시기 중극에 달했다.

(3) 1978년 이후 국가의 개혁개방의 진전에 따라 중국의 마르크스주의 철학 연구는 점점 “左”的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활기를 띠게 되었다. 앞선 두 시기에 비해 이 때는 장족의 발전을 거두고 많은 성과를 이룸으로써 20세기의 가장 번영한 시기가 되었다.

당대 중국현대화 전설의 실천은 이 시기 마르크스주의 철학에 대한 전문적 연구에 아주 유리한 사회환경과 연구분위기를 조성해 주었다. 이와 동시에 국가의 대외개방에 따라 각종 유형의 학술적 관점과 이론체계가 다시 들어오게 되었다. 이는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다른 시각과 참고할 만한 방법론 및 자료를 제공하였으나, 어떤 면에선 우리의 사고를 살아 움직이게 해 준 측면도 있다. 다른 한편, 이에 대해 우리의 수용 능력을 진단하고 우리가 좋고 나쁜 것을 분별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게 되었다. 받아들이는 것과 경계하는 것, 이 들은 當代의 마르크스주의 철학 연구자들의 성숙한 심리상태를 잘 보여준다.

바로 이러한 사회배경과 조건 아래 근 20여 년 동안 마르크스주의 철학에 대한 연구는 열기를 잃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필자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진전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

1. 인간과 인도주의 및 소외문제에 관한 연구는, 마르크스주의에 존재하는 “人間學의 부재”라는 피상적 인식을 불식시켰으며, 이로부터 계속해서 진행된 인간학의 체계와 내용에 대한 연구는 마르크스주의 철학이 지난 인간학의 내재적 합의를 더욱 심화시켰다.
2. 실천유물주의에 대한 토론은, 마르크스주의가 철학사상 실현한 혁명적 변혁의 본질특징에 대한 다른 이해를 드러내었고, 연구자들이 일률적이지 않고 각기 개성을 발휘했다는 점을 보여 주었으며, 궁극적으로 상이한 유파의 형성과 발전에 도움을 주었다.
3. 주·객체 관계와 주체성 원칙에 관한 토론은, 舊유물주의와 각종 유심주의 각각의 편파성을 해소하였으며, 마르크스주의의 입장을 정리하였다.
4. 인

식본질, 사유구성, 理性과 非理性 등에 관한 토론은, 마르크스주의 인식론이 당대의 자연과학과 交叉科學의 최신성과를 자각적으로 흡수하였고, 이로써 인류의 사유과정과 機制에 대한 인식을 심화하였음을 보여준다. 5. 가치론이 철학에 편입됨으로써 철학의 영역이 더욱 넓어졌다. 6. 마르크스 晚年の 사상에 대한 연구가 활기를 띠었다. 특히 『인류학 노트』, 『역사학 노트』, 그리고 자본주의라는 “카푸틴 협곡”을 전너떤 점 등등에 관한 토론은 마르크스주의가 당 시대에 여전히 가치 있는 實庫라는 점을 잘 드러낸다. 동시에 마르크스주의 철학사에 대한 철저한 연구와 단계적 분석 및 개별적 사항에 대한 인식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였다. 7. 문화문제가 두드러지게 부각된 점은 학자들의 넓어진 시야를 반영하는 것이며, 다른 유형의 문화형태 사이의 교류와 충돌 및 변혁을 깊이 이해함으로써 한 차원 높은 새로운 사유의 방향을 개척해 내었다. 8. 시장경제와 도덕문제에 대한 토론은 당대 중국의 변혁에 주의를 기울이게 하였는데, 이는 이론방식으로 개혁에 관여한 것이며 실천을 해석하고 규범 지우며 이끈 중요한 내용이다. 9. 사회발전이론에 대한 연구는 한 차원 더 높이, 좀 더 큰 범위 내에서 당대 중국의 발전으로부터 비롯하여 세계현대화 과정을 위한 반성과 자각을 야기했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일관된 사유와 고유한 풍격을 지닌 (“개체성철학”과 상대되는) 일종의 사회철학으로서 마르크스주의 철학을 직접 계승했으며, 다른 한편 이와 동시에 마르크스주의 철학을 좀 더 거시적인 수준으로 끌어 올렸다. 10. 철학 자체의 기능과 특징에 대한 반성적 회고, 그리고 구소련 철학체계에 대한 평가 및 당대 중국철학체계를 구축하는 문제와 유관한 토론은, 철학의 자아인식과 자아갱신의 의지가 더욱 강렬해 점을 나타내는 것이며 당 시대와 미래에서의 발전을 자각적으로 추구하는 것이다.

중국사회가 다원적 발전이라는 전환기에 진입함에 따라 철학은 사회의식 형태구조와 국민의 정신생활에서 더 이상 중심이라는 지위를 누리지 못하

게 되었음도 물론 눈여겨 봐야 한다. 이제까지 말한 중요한 진전들은 전문적 연구영역에 한하는 것이며, 과거처럼 모든 사람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그러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는 반응”을 만들어 낸 것은 아니었다.

2

한 세기의 중국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전문적 연구는 갖은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중국철학의 전반적인 연구에 크게 영향을 끼쳤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 전통철학의 “道統” 계열을 계승하고, 근대 중국의 백여 년간의 정신세계의 혼돈 상태를 마감했다.

상대적으로 안정되고 발전된 사회에서는, 그 시대의 사상적 특징을 반영하고 사회발전을 이끄는 이론체계가 주도적인 지위에 오르게 되는데, 이는 사회의식의 형태구조 가운데 통괄하고 규범이 되며 인도하는 역할을 맡을 뿐 아니라 아울러 정신관념으로부터 그 사회의 정상적인 운행을 유지하기 까지 한다. 중국철학은 중화문명의 사상적 핵심이다. 예부터 지금까지 각 시대마다 이와 같은 역할을 발휘해 왔다. 先秦시기의 백가쟁명 이후, 국가의 통일과 함께 秦漢儒學, 魏晉玄學, 隋唐佛學, 宋明理學, 清代實學 등 철학관념의 변화가 나타났다. 바로 이러한 서로 다른 철학관념들이 속출하고 서로 연결되는 가운데, 中華민족정신이 명맥을 이어온 것이다.

그러나 근대로 접어들면서 서양열강의 침입으로 국력이 쇠잔해지고 폐단이 속출하여, 중국전통철학은 중국정신세계를 통괄할 능력을 잃게 되었다. 각종 思潮들이 우후죽순 격으로 나타났으나, 그 모두는 시대의 문제를 해소하는 작용을 발휘하지는 못하였다.

금세기에 들어서서야 겨우 마르크스주의를 발견하고 다시 그것의 中國化를 이루게 되니, 비로소 이러한 국면은 근본적인 변화가 있게 되었다. 비록 마르크스주의 철학이 근본적으로 상술한 봉건시대 철학 형태와는 크게 다르다고는 하지만, 과거의 서로 다른 형태의 철학들이 모두 당시 시대정세에 부합한 것과 마찬가지로 마르크스주의 철학도 어느 정도는 當代 중국의 실제와 미래의 발전 방향을 반영한 바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모두가 유사점을 가지며 공통된 기능을 발휘했다 하겠다. 만약 중국 當代 史가 과거 역사의 연속이라고 말한다면, 마르크스주의 철학이 當代에 주도적인 지위를 점하고 있는 점이 나타내는 바는 바로 공교롭게도 중국 전통철학에서 나타났던 근본적인 전환이다.

둘째, 철학이 서재로부터 나와서 사회를 향하고, 학자에서 대중으로 보급되며, 이론으로부터 실천으로 전환하려는 강렬한 의지를 구현해내었다. 20세기 중국의 마르크스주의 철학 연구는 철학의 선전, 보급 및 응용을 매우 중시하였다. 毛澤東의 철학관은 이러한 뜻과 행위를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다. 그는 시종일관 철학을 “하나의 방법, 하나의 틀”로 간주한다. 즉 철학이 바로 인식론인 것이다. 그는 만약 그것을 구체적인 일에 활용하지 못함으로써 구체적인 일에서 이탈하게 되면, 철학은 곧바로 무용지물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그는 또한 철학에 대한 신비주의적 태도를 타파하였다. 사람들에게 “철학을 너무 어렵다거나 너무 신비하게, 또는 너무 신성불가침적인 것으로 보지 말라!”고 경고했으며, 철학의 도리는 “마땅히 간부와 군중들로 하여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철학으로 하여금 철학가의 교실과 서재로부터 해방시킴으로써 군중의 무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毛澤東書信選集』, 人民出版社, 1993, pp. 407, 487). 毛澤東의 이러한 견해는 복잡한 사회 변동가운데서의 이론이라는 무기의 특수작용과 사람들의 그것에 대해 염원 정도를 충분히 나타내 준다. 확실히, 철학이론이 구체적인 일에 활용

될 때, 사람들의 소박한 철학적 의식은 쉽게 배양되고 발휘될 수 있다. 근 20년 동안 기본적인 철학이론의 영향이 쇠퇴해져 가는 상황아래, 응용철학 예컨대 경제철학, 관리철학, 교육철학 등이 부상하였는데, 이는 5, 60년대 철학보급운동의 잔재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철학을 단지 하나의 방법론이나 인식론으로 이해하는 것은 철학의 본래 범위를 일정 정도 축소시켜 버린다는 점, 특히 인생과 사회에 대한 한 차원 높은 형이상학적 이해와 고려를 철저히 배제해 버린다는 점을 또한 지적할 수 있다. 또 철학이론의 구조적 단계로 볼 때, “철학의식”, “철학관점”, “철학이론”은 다른 것이다. 소박한 철학의식은 사람의 마음 속에 숨겨져 있으나 철학가와 일반 대중에게 있어서는 역시 커다란 차이가 있으니,同一을 추구하고자 하면 수준의 저하나 심리적 팝박을 초래할 수 있다. 철학의 응용에 관하여는 마땅히 철학이론이 전환된 구체적 機制와 매개 부분에 주의 해야 하며, 이를 놓치면 직접 적용한다 할지라도 教條化와 비속화를 면할 방법이 없다.

셋째, 마르크스주의 철학의 시공간적 보편타당성을 확장하였다. 국외에서 들어온 학설로서의 마르크스주의를 진정으로 中國化 시킬 수 있는 지의 문제는 20세기에 줄곧 의문의 대상이 되었다. 이유는 마르크스주의 중요인물들이 일생 동안 마음을 기울여 연구한 것은 유럽 선진국의 자본주의 사회상태와 사회주의의 미래 운명인데, 중국은 그 상황이 오히려 완전히 다른 국가제도에 처해 있다는 것이다. 지금에 와서, 이는 문제를 연구할 때의 일종의 기계론적 관점이라는 것이 분명해졌다. 마르크스주의가 비록 특정 국가제도에서 나타났지만, 세계역사와 문명발전의 성과를 융합하고자 시도함으로써 사회의 발전 대세를 장악하였기 때문에, 더더욱 “세계철학”이 되는 것이다. 이런 형태의 철학은 필연적으로 유럽의 경계를 넘어야 하는데, “멀제는 독일과 유럽의 경계 밖, 문명세계의 모든 언어 가운데에서 대표를 찾은 것이

다.”(『마르크스·엥겔스 選集』, 제4권, p. 208)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마르크스주의 철학의 本土化는 두 가지 變位의 努力에서 기인한다. 하나는 중국 사회의 변혁이 실제 필요로 한 것인데, 마르크스주의 철학을 다른 형태와 비교할 때 그것은 “이론의 무기”가 되는 현실적 조건을 더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중국철학 자체가 소박한 변증법과 유물주의 전통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를 위하여 양자간의 융화와 결합이라는 내재적 가능성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本土화와 연관 지어볼 때, 아직 當代化의 문제가 남아있다. 지난 세기 중엽에 나온 한 학설이 전면적으로 변모하는 시대를 맞이하여 여전히 효과적인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가? 마르크스주의에 관하여 말하자면, 20세기 후반 20년 동안 일련의 사회주의 국가 발생의 변화에 따라 이러한 의문이 심상치 않게 돌출 되었다. 그러나, 중국의 근 20년 간의 발전과 그 이론의 연구는 일련의 문제의 형식과 내용, 主流와 支流, 大勢와 曲折, 외부표현과 내재본질의 분석과 변별 등에 대해 마르크스주의가 여전히 상당한 영향을 발휘한다는 점을 밝혀 주었다. 그 이유는 근본적으로 볼 때 마르크스주의가 제기하고 탐구한 문제는 여전히 當代의 세계가 마주한 중대한 과제와 연결되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中國化와 當代化는 마르크스주의 철학의 시공간적 보편타당성을 잘 보여준다.

두 말 할 것 없이 20세기 중국의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전문적 연구에도 일정한 문제는 존재한다. 예를 들자면, 毛澤東이나 鄧小平 같은 정치가들은 자신의 고유한 사상과 실천을 구축할 수 있는 이론을 창조한 바 있는데, 이들의 경우를 제외하면 전문적으로 연구에 종사한 철학가들 중 이들과 비교하여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친 인물과 논저는 아주 적다는 것이다. 연구에 있어서도 해석과 선전의 방면에 힘을 쏟는 것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공동저

술은 보편적이다 싶을 정도이나 단독 연구나 새로운 견해를 제기하는 경우는 비교적 적다. 더욱이 教條主義가 기승을 부리면서 경전을 번역하고 주석작업을 하고 외우고 인용하는 것이 일군의 연구자의 유일한 연구 취향이자 활동이 되었는데, 여기에 “문화대혁명” 기간 중 정치적 文人 무뢰배들에 의한 曲學阿世까지 덧붙여 얘기한다면 정말 가관이라 하겠다. 일단 교조주의가 일종의 사유습관과 模式이 되자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캐케묵은 틀 속에서 문제를 찾고, 문제를 생각하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다. 이는 20세기의 마르크스주의 연구가 마땅히 지불해야 할 대가였다.

3

새로운 세기의 기점에 서서 21세기의 중국마르크스주의철학 연구는 어떤 할까를 전망하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으면서도 또한 자못 곤란한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역사는 하나의 과정이니 내일은 곧 오늘의 연속인 것이다. 20세기 중국의 마르크스주의철학 연구과정에 대한 이상의 회고와 분석 아래 우리는 대체로 몇 가지 거시적 전망을 내놓을 수 있겠다.

필자가 보기애 21세기에 중국의 마르크스주의철학 연구는 훨씬 더 전문화되리라 생각한다. 한편으로 마르크스주의철학에 대한 전문적 연구가 비중 면에서 그것에 대한 선전과 보급사업을 초과할 것이나, 다른 한편 사회의 다원화와 사상의 다원화란 상황 아래 이 영역의 연구에 종사하는 이는 분명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이 때문에 전문화란 측면의 강화는 분명 필연적인 추세이니, 아래에 서술할 정황들이 바로 하나 하나 드러나게 될 것이다.

1. 텍스트 연구가 더욱 확장되고 심화될 것이다. 20세기의 현실 상황에 얹

때여서 과거 중국의 마르크스주의 연구는 주로 이미 체계를 갖춘 몇몇 저작, 예컨대 『공산당선언』, 『자본론』(제1권), 『국가와 혁명』, 『유물주의와 경험 비판주의』, 『모순론』, 『실천론』 등에 집중되었다. 21세기에는 중요인물들의 모든 텍스트 자료가 연구자의 시야에 포함될 것이다. 여기엔 완성된 저작은 물론 미완성의 手記나 노트 등도 포함될 것이다. 또한 그들의 생전에 공개된 글들뿐 아니라 후세 사람들에 의해 정리된 舊本도 해당될 것이다. 이론적 관점을 표명한 논문이나 자신의 내면 심리가 담겨 있는 書信이나 札記도 포함될 것이고, 학술적으로 무르익은 중년의 글들이나 총기가 번뜩이는 청년시절의 생각 및 황혼에 정리한 마지막 사색 등도 포함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전체로서의 한 세계이니, 인위적으로 분리해서는 안 된다.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전문적 연구의 심화는 연구자로 하여금 중요인물들의 진실하고 복잡한 심리를 완전하게 재현할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더 이상 그들을 단순히 역사적 규율을 선포한 자로만 여겨서는 안 되고 그들이 얼마나 힘겹게 이론적 사유를 일구어 냈는지도 살펴야만 한다. 그들은 단지 과학적 역사유물주의이론으로 온갖 복잡한 사회현실을 해석하고 분석한 데만 뛰어났던 것이라 아니라, 그러한 이론 자체에 대해서도 항상 반성적 회고와 검토를 가했던 것이다. 또한 그들은 단순한 이론가나 학자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혁명가이자 실천가이기도 했으며, 그들의 개인생활 가운데에서도 출곧 진퇴 양난의 선택과 각종 곤혹스러운 지경에 처하기도 했다. 그런데 경전작가들의 이러한 복잡성을 구성하는 여러 측면을 드러내는 것은 몇몇 완성된 대작에만 의존해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러한 다량의 書信, 札記, 談話 기록 등은 역사적 가치를 지니며 시급히 정리를 요하는 것들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상당량의 새로운 텍스트(대량의 遺作, 草稿와 노트)가 계속 세상에 나온 후 이 방면의 연구는 더욱 활기를 띠게 되었으며, 그들의 사상에 대한 이해도 훨씬 더 객관적이고 과학적이게 되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에 의해 그들의 신상에 억지로 갖다 붙여졌던 教條性과 片面性 및 그들에 대한 극단과 비속이라는 평가는 반드시 해소될 것이다. 중요인물의 텍스트는 꺼내도 꺼내도 줄지 않는 보물창고 같은 것이다. 또한 시대의 발전에 따라 다른 부분의 새로운 가치와 의의가 드러날 것이다. 이는 마르크스주의 철학 연구의 영원한 기반이다.

2. 20세기의 역사는 앞으로의 연구에 중요한 내용이 될 것이다. 그 이유는 단지 철학 연구에서 철학사의 비중과 양이 계속해서 두드러지게 증가했기 때문만은 아니고, 20세기 철학의 발전과정 중 자체의 문제점과 이견이 많고 다양해졌을 뿐 아니라 사회변동과의 관계도 복잡해졌던 데에서 더 큰 원인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니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바이다. 학자들에게 있어 20세기 내에는 완전한 반성적 검토와 수용이 이루어질 수 없었다. 이제 21세기에는 장시간 면밀히 정리하고 변별하여야 한다. 즉 20세기에 연구됐던 문제, 출현했던 인물과 유파 및 사건 등을 모두 21세기의 저울에 올려 놓고 검토 및 평가를 해주어야 한다.

마르크스주의 철학의 연구자들로 말하자면, 20세기 제반 문제들 중 어떤 것은 마르크스주의 학파 “자신”의 것이나, 그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은 우리 내부의 문제이다. 일정 시간을 더듬어 새로운 기점과 시각에서 마르크스주의 철학의 20세기에서의 운명을 돌아켜 볼 때, 학자들은 전파·발전 중의 마르크스주의와 본래 의미로서의 마르크스주의 간의 관계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 중요인물들에 대한 연구에 있어 아마도 철저한 연구에 큰 시사를 줄 수 있을 것이다. 이 밖에도, 예컨대 소련 철학체계의 功過라는 것이 있다. 르따니노프式 철학사 연구방법의 영향, 중국 마르크스주의 발전의 역사와 특징, 유고슬라비아의 실천파 철학, 서양의 마르크스주의가 탐구했던 문제 등등을 모두 21세기에公正하게 비판하고 평가 및 분석해야 한다. 물론, 자신과 연관된 이러한 유파의 문제를 정리하는 것 외에도 연구

자는 또한 20세기의 다른 유파와 인물에 대한 사상도 적극적인 자세로 잘 살펴야 한다. 특히 언어, 논리, 텍스트, 해석, 현대성, 後發 문제, 문명의 충돌과 융화 등등 철학 안팎의 논점들에 있어, 중국 마르크스주의 철학 연구는 그것들에 대한 자신의 체계적인 견해를 내놓아야 한다.

결론적으로 20세기에 대한 반성적 검토는 21세기의 철학연구에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유효할 것이다.

3. 현실과 시대의 문제를 주목하는 것은 마르크스주의 철학 연구의 장점이다. 마르크스주의 철학은 일종의 사회철학이며, 아울러 개체 생명의 인생체험과 생존가치를 부지런히 찾아낼 뿐만 아니라 사회의 진보와 인류의 전체적인 발전도 중시하고 있다. 진정한 마르크스주의 철학 연구자의 입장에서 말하자면 “고요한 고독과 스스로 지키는 것을 좋아하거나 모호한 것을 논하는 자아직관에 물두한다.”는 것을 결코 의미하지는 않는다. 마르크스주의 철학이 근본적으로 전념하는 문제는 사회발전에 있어서의 중요한 문제와 미래가 역사유물주의의 규율성으로 설명되고 이끌어진다는 점이다. 21세기의 중국 마르크스주의 철학 연구 또한 이러한 풍격과 장점을 잃어버릴 수 없다. 마찬가지로 21세기의 마르크스주의 철학 연구 역시 현실을 주목하고 있으나 방법상에 있어서 자신의 특징을 가질 수 있다. 예를 들면, 20세기의 객관적인 형세에 비추어 볼 때 사회의 식형태의 구조라는 측면에 있어서 철학과 정치의 관계는 가장 밀접하다. 21세기에 이르러 철학은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이나 문화형태 혹은 과학기술의 발전 등에 더욱 주목하고 있다. 특히 지식경제시대에 있어서 마르크스주의 철학은 시대의 발전과 발걸음을 같이 하고 있어서,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지식이 轉化되는 과정을 따르고 이를 반영할 수밖에 없다.

동시에 21세기 중국의 마르크스주의 철학 연구가 현실을 주목한다는 것은, 시대의 소식통이 된다는 것이 아니며 현실과 시대라는 관계에서 세 가지

의 측면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첫째는 현실을 해석하는 것이다. 이는 철학적인 시각에서 복잡한 사회현상에 대하여 객관적이고도 전면적인 반영과 합리적인 설명 및 해석을 통하여, 복잡한 관계로부터 일목요연한 단서를 찾아내고, 표면적인 평행 구조로부터 등급과 차례를 찾아내고, 두서 없는 과정에서 문제의 난점을 찾아내는 것이다. 정상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마르크스주의 철학이 현실에 대하여 관심이 없거나 현실을 해석할 능력이 없을 수 없다. 둘째는 현실을 자세히 관찰한다는 것이다. 마르크스주의 철학이 현실을 주목한다는 것은 간단하고도 틀에 박힌 듯이 사회현상과 사회관계를 반영한다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현실을 영원히 만족할 수 없으며 일종의 반성적인 태도로 현실을 대하여 의문을 제시하거나 그 부족함과 결함들을 지적해 낸다. 현실에 대한 이러한 관찰과 비판은 미래에 대한 이상을 추구하거나 구상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셋째는 현실을 초월한다는 것이다. 마르크스주의 철학은 “그들 시대의 방식으로 사고하는 것을 초월하거나 반대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러한 이성과 지혜 혹은 도덕상의 용기가 없다면 철학은 자신이 속한 문화와 사회에서 사명을 완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철학은 시대를 초월하고 현실을 초월한다. 그러나 시대와 현실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철학은 현실로부터 출발하여 시대의 모범적인 것을 보여주며 시대를 이끈다. 시대와 철학의 관계는 시대가 철학을 만들기도 하지만 철학 또한 시대를 만든다. 시대는 철학을 변화시키지만 철학 또한 시대를 개조한다.

4. 연구집단은 문화를 초래할 것이다. 문화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신앙인과 연구자의 신분이 나뉘어 진다는 것이고, 둘째는 경전의 이해와 관점에 관한 해석이 더욱 다양화되고 개성화 된다는 것이다.

만일 20세기 중국의 마르크스주의 연구자 가운데 신앙인과 연구자의 신분이 합쳐져 하나로 되는 것이 상당히 보편적인 현상이었다면, 21세기에 이

르러 이러한 현상은 비록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신앙인과 연구자의 분리 또한 당연히 이루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학자들이 어떠한 정치적인 입장을 가지느냐와 상관없이 인문과학 혹은 사회과학의 입장에서 볼 때 마르크스주의 이론 및 그 거대한 영향력은 모두 피할 수 없는 중요한 과제이기에, 그 어떠한 평가도 오직 연구와 이해라는 기반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신분 분리와 관련하여 21세기에는 마르크스주의 경전의 이론과 관점에 관한 해석이 더욱 개성화 되어 하나의 정형화된 틀이 만들어질 수는 없다. 이러한 점은 모든 문제가 공통된 인식에 도달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관점이 대체로 서로 비슷해지더라도 서로 다른 논증과 정의를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21세기의 이성적인 마르크스주의자는 마땅히 “나의 주석으로 六經을 연구한다.”는 명분을 경계하고, “六經의 주석으로 나를 증명한다.”는 실제적인 것을 실행하게 되므로 마르크스주의 연구의 객관성과 과학성을 유지하게 된다.

5. 전통과의 대화 및 서양과의 대화는, 종합적인 창조의 과정 중 중국의 마르크스주의 철학 학파를 탄생할 것이며 세계에 영향력 있는 전문 철학자와 철학논저를 만들어 낼 것이다.

20세기 최후의 20년 동안 이루어진 마르크스주의 철학에 대한 전문적 연구의 비약은 21세기의 연구자의 시야를 더욱 넓혀놓았다. 체계적인 전문적 훈련과 완전한 지식 구조를 갖춘 그들은 적극적으로 전통과 서양에 관하여 실질적인 대화를 함으로써 세계를 향하여 발언할 수 있게 된다. 자신의 문제만을 중시하지 않음으로써 이질적인 분야에 관하여도 깊이 있게 조목조목 분석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면은 결코 원칙 없이 각종 형태의 문화적 성과를 인정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기초적인 揚棄와 종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종합 또한 創新을 위한 것이며 創新이야말로 더욱 본

질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創新은 하나의 이론적 문제이며 철학 내부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실천과 더욱 관련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또한 20세기의 연구자와 비교해보면, 아마도 실천경험의 결핍은 다음 세기 연구자의 하나의 약점이 될 수 있으나, 단지 철학의 ‘生長點’을 영원히 실천 속에 위치시킨다면 시대와 함께 나아감으로써 이러한 이론적 종합과 실천적 創新 가운데 중국 마르크스주의의 학파와 체계가 성립될 수 있다.

총괄적으로 말하자면, 마르크스주의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갖든 혹은 마르크스주의에 대하여 어떠한 해석을 하든, 연구대상으로서의 마르크스주의는 21세기에도 여전히 주목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결코 미래의 활력과 효용이 저절로 드러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중국이라는 대국의 입장에서 말하자면, 우리민족의 독자적인 것이면서도 21세기 사회의 변천된 문화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한다. 옛 것에 대한 향수에 빠져 오직 옛 정을 토로만 하거나, 고적 속에 파묻혀 백발이 되도록 원전 텍스트만 탐독할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외래적이고 새로운 조류이며 현대적이라 할 문화에만 의존할 수 없다. 다른 사람의 생각과 체계에 진입하여 창조적인 의식을 확대함으로써, 자기 국가의 현대화를 이루는 이론 건립을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것이다. 아마도 이것이 문제의 관건일 것이다.